

최병두의 하비 읽기

Reading David Harvey with Choi Byung-Doo

김용창*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현존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이자 지리학자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하비의 연구 성과는 한국공간환경학회와 최병두 교수님(이하존칭 생략)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하비의 논문과 저서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비판적 공간연구의 핵심 교재였다. 하비는 자신의 저서가 왜 이렇게 많이 한국에서 번역되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데, 그 의아함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최병두이다. 왜 그렇게 많이 하비의 저서와 글을 한국에 번역·소개했는지를 최병두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심층적’ 이해를 ‘지리학적’으로 추구하고자 열망했던 두 위대한 연구자의 성정과 목적이 같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은 지리학과 공간연구 분야를 넘어 경제학, 사회학, 인문학, 심지어 신학에서까지 하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하비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한국공간환경학회이고, 1980년대 반군부독재 투쟁 시기의 시대적 소산이다. 반군부독재 투쟁이 절정을 향해 가던 1986년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kimyc@snu.ac.kr)

과 1987년 사이 한국에서 자생적인 비판적 공간연구는 크게 서너 갈래였다. 김한준(현 한국공간환경학회 부회장, 포스트미디어 대표), 김찬호(현 중앙대 교수) 등의 서울대 공대 대학원생, 권오혁(현 부경대 교수), 강현수(현 국토연구원장) 등의 서울대 환경대학원생, 김용창(현 서울대 교수), 구동희(현 부산대 교수) 등의 서울대 지리학과 대학원생, 김왕배(현 연세대 교수) 등의 연세대 대학원생 그룹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봉천동 ‘타임다방’ 등에서 만나 연대를 모색하며, 김한준의 주도로 1988년 1월 『현대도시 문제의 이해』(한길사) 출판을 위한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그 뒤 이들 서너 그룹이 주축이 되어 1988년 7월 17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이하공환경연)가 창립되었고, 영국에서 비판공간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최병두가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어 연구회를 앞장서 이끌었다. 연구회 초창기 최병두는 조명래(현 환경부장관)와 더불어 단 두 명뿐인 교수였다. 그만큼 최병두는 그 어떤 분야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한국의 비판적 공간연구를 이끌었던 것이고, 데이비드 하비는 이 과정에서 일종의 향도였다.

최병두는 1979년 「충주댐 건설에 의한 수몰예정지역의 조사연구: 지역주민의 공간행태를 중심으로」라는 글로 공간관련 연구에 데뷔하였지만 일찍이 1983년 하비의 『사회정의와 도시』(종로서적)를 번역·출판하면서 하비와 인연을 맺었다. 사회의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지리학에 실망하고 있던 나의 대학 3학년 때, 이러한 지리학도 있구나 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리고 이 책이 금서목록에 올랐을 때, 지리학 책도 금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1984년 10월 11일 학교 앞 ‘광장서적’에서 3천 원을 주고 이 책을 사서 읽었다.

당시 최병두는 공간 관점을 무시하고 있던 기존의 사회과학, 공간의 본질에 무감각한 기존의 지리학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이 책을 번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번역 작업이 “연못에 조그만 돌멩이를 던지려는 아이의 심정”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고, 더 큰 돌멩이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최병두가 설정했던 공간과 사회 사이 관계에 대한 쟁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쟁점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로부터 35년이 흐른 지금 최병두 자신은 물론, 그가 이끈 공환연은 무지하게 큰 돌맹이가 되어 사회와 학계 모두에 에너지를 불어 넣고 있다.

공환연에서 하비 연구 성과를 집단적·체계적으로 읽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전적으로 최병두의 덕택이었다. 1989년 11월 공환연 연구위원회는 매월 2회 정기 윤독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윤독 교재는 하비의 *Urbanization of Capital*과 *The Limits to Capital*로 정했다. 초기에는 성황을 이루었으나 점차 시들해지면서 중단되었다. 그러자 방식을 바꾸어 최병두가 혼자 전체 발제를 책임지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형태로 다시 출발했다. 1991년 4월 27일 서울역 근처에 있던 대우학술진흥재단 세미나실에서 하비의 *The Limits to Capital*를 대상으로 제1회 강독회가 이루어졌다. A4 용지에 뽁뽁하게 입력된 최병두의 번역 원고를 배포해 윤독하던 때의 회상이 머릿속을 즐겁게 한다. 그때 참가비는 1만 원이었고, 1992년까지 매월 4째 주 토요일 오후 2~5시 사이에 진행되었다.

이처럼 최병두는 공환연과 한국에서 하비를 읽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 당시 윤독회 준비를 토대로 하비의 마르크스주의적 지리학과 공간정책경제학의 정수인 『자본의 한계』를 1995년 번역·출판하였다. 이후 최병두는 『희망의 공간』(2001), 『신제국주의』(2005), 『신자유주의』(2007),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2017) 등 하비의 주요 저작들 대부분을 번역·출판했다. 어떻게 보면 하비 본인보다 자신의 저서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자가 최병두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로 된 책을 번역하려면 심층적인 독해와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비 정독을 바탕으로 최병두가 우선적으로 한 일은 국내 학계에 생소한 하비와 그의 공간정치경제학을 소개하는 해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하비의 정치경제

학적 지리학』(1993), 『자본의 한계: 공간의 정치경제학』(1995),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2017)에 대한 역자 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비보다 하비를 더 잘 아는 최병두는 하비의 학문 발전 단계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최병두, 1993). 첫 번째 단계는 실증주의 지리학의 영향과 그 완결로서 1960년대이다. 이 시기 하비는 계량 혁명을 단순한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혁명이라는 관점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던 시기로 보았다.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로 지리학의 정치경제학적 재구성 시기로 규정한다. 하비가 『사회정의와 도시』(1983)를 출판하던 시기로서 “맑스주의 전통 속으로 들어가는 하비의 발걸음은 아주 신중했으며, 오히려 우유부단하기조차 했다”고 최병두는 평가한다(최병두, 1993: 322). 세 번째 시기는 정치경제학을 지리학적으로 재구성한 시기로서 1970년대 말~1980년대 전반기에 해당한다. 정치경제학 또는 마르크스 저작에서 ‘빈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비가 인식한 이래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을 지리학적으로 재구성하고자 모색한 시기이다. 이 시기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 『자본의 한계』(1982)이며, 공환연이 최병두 주도로 공간정치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한 저술이다. 네 번째 시기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서 ‘포스트’주의 유행에 맞서 하비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의 유효성을 여전히 중시하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의 확장을 꾀하는 시기이다.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1989)을 출판한 시기이며, 하비는 포스트모더니티를 역사적 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본다. 이 시기는 ‘탈취에 토대를 두는 축적체제’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의 공간정치경제학과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 성과도 포함한다.

하비는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한 이래 지난 45년여 동안 다양한 연구 주제에 걸쳐 수많은 연구 성과를 쌓았다. 이러한 그의 학문 세계를 일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하비를 정독한 최병두는 하비의 학문 세계와 연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음 열 가지를 들고

있다(최병두, 2016). ① 관계적 공간과 시공간적 압축, ② 자본의 시공간적 순환, ③ 자본축적의 위기와 모순, ④ 공간적 조정과 지역불균등 발전, ⑤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⑥ 신제국주의, ⑦ 신자유주의, ⑧ 신자유주의 도시화, ⑨ 희망의 공간, ⑩ 도시에 대한 권리.

최병두는 이러한 하비의 연구에 대해 그가 자본 순환의 공간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 학계에 가장 큰 기여라고 평가한다. 반면에 최병두가 보기에 하비의 가장 미흡한 부분은 환경 연구이다. 그는 하비가 환경(정의)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지 못했고, “아쉽게도 맑스의 저작에 산재해 있는 자연·환경에 관한 단편적 논의를 자신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식화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최병두, 2017: 616).

그렇다면 최병두는 하비의 학문 세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비는 기존의 지리학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철학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간정치경제학을 개발했다는 것이 최병두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점이다. 반면에 추상 수준이 높은 분석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중범위 수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부구조에 대한 분석, 선진국의 사회적·학문적 경험에 기초한 배경적 한계를 넘어서는 제3세계의 시공간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일찍이 말한 바 있다(최병두, 1993).

최근 최병두는 하비 연구가 학문적·실천적으로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하비는 공간에 관한 연구에 비판적 사회이론을 도입했다. 둘째, 하비는 마르크스 이론 나아가 비판 사회이론 일반에 공간 개념을 다시 인식하도록 했다. 셋째, 노동운동과 더불어 탈취에 의한 축적에 저항하는 운동, 특히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최병두, 2016). 이러한 의미 부여는 앞서 말한 것처럼 1983년 최병두가 하비의 책을 처음 번역하면서 제시했던 사유로 다시금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해답을 찾는 학문의 여정에서 시작과 끝이 수미일관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여든이 넘는 노학자가 여전히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 노학자의 저작을 다시 치밀하게 읽고, 그의 사상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 그에 입각하면서도 독자적으로 한국의 공간정치 경제학을 30여 년 동안 선도한 사람이 최병두이다.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을 매개로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마르크스의 위대함은 비록 ‘최후’의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기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며 파괴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 하비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기본 논리를 이어받으면서 역사지리적 유물론 방법을 통해 마르크스를 이해하는 통상적인 프레임을 바꾸려고 시도한다.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사후적으로 해석의 올바름을 제시하는 데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욱 복잡해진 사회경제 현실과 그 미래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갈 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많은 영역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비의 역사지리적 유물론과 최병두의 작업이 이러한 길을 선도하고 있다(김용창, 2018).

참고문헌

김용창. 2012. 『왜 시·공간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가?: 데이비드 하비 <자본의 한계>』. 『사회과학 명저 재발견 3』.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_____. 2018. 『하비의 역사지리적 유물론과 자본주의 공간생산론: 마르크스주의와 공간적 사유의 통합』. 『경제사상과 전환시대 자본주의』. 도서출판 해남.

최병두. 1993. 『하비의 정치경제학적 지리학』.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한국지리연구회 엮음. 민음사.

_____. 1996. 『데이비드 하비의 역사·지리유물론: 공간의 정치경제학과 포스트모더니티』. 《경제와사회》, 제31호, 204~239쪽.

_____. 2000. 『데이비드 하비의 환경정의론과 <희망의 공간>』. 《공간과 사회》, 제14호, 243~270쪽.

_____. 2011. 『데이비드 하비의 지리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한국학논집》, 제42권, 7~38쪽.

_____. 2016. 『데이비드 하비』. 커뮤니케이션북스.

하비, 데이비드(David Harvey). 1995. 『역자 해제』. 최병두 옮김. 『자본의 한계: 공간의 정치경제학』. 한울.

_____. 2017. 『역자 해제』. 최병두 옮김.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 창비.